

롤드컵·지스타...을 가을 게임축제 '풍년'

〈LoL 월드챔피언십〉

롤드컵, 내달 8강~결승전 국내 개최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내달 3일 천안
11월엔 벅스코서 '지스타 2014' 개막

을 가을, 게임 마니아들의 가슴이 설렌다. 10월과 11월 국내에서 연이은 대규모 게임축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중 하나인 '롤드컵'이 국내에서 열리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도 개최된다. 11월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예정돼 있다. 주관 및 주최사들은 최근 잇달아 상세 일정을 공개하며, 사전 흥행몰이에 나섰다.

●롤드컵, 8강부터 한국서 개최

라이엇게임즈는 최근 인기 PC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종목으로 한 '2014시즌 LoL 월드챔피언십(롤드컵)'의 전세계 출전팀과 조편성을 발표했다. 본선 출전팀은 한국 3팀을 포함해 북미와 유럽, 중국 등 총 16개 팀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 블루'와 '삼성 화이트', 그리고 '나진 실드'가 진출권을 확보했다. 삼성 블루는 C조, 삼성 화이트는 A조, 나진 실드는 D조에 속해 8강 진출을 노린다. A·B조는 9월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에서, C·D조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조별예선을 치른다.

한국에서는 8강부터 결승까지 열린다. 8강은 10월3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치러지고, 준결승전은 10월11일과 12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소환사첩과 100만 달러 우승 상금의 주인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은 10월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e스포츠 전국체전 천안서 개최

제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2014 대통령배 KeG)의 그랜드 파이널도 관심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천안시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e스포츠대회다. 10월3일부터 5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삼거리공원에서 열린다. KeG는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전국체전 형태의 통합 아마추어 대회다. 2009년 대통령배로 승격한 이후 대한민국 대표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의 총상금은 1억 400만원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하스스톤' 2개의 코어종목과 '스페셜포스', '스페

셜포스', '원 데 러너', '모두의 마블' 등 4개의 제너럴 종목으로 치러진다. 천안e스포츠문화축제도 함께 열린다. 가족리그와 오픈리그, 장년리그, 장애인리그로 구성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반 시민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게임문화 상담소, 키넥트 및 골프존 등 전시·체험장도 운영한다.

●10월 맞은 '지스타' 대미 장식

바통을 이어받아 가을축제의 대미를 장식

식하는 행사는 올해로 10주년 맞은 '지스타 2014'다. 늦가을인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열린다. 슬로건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최근 발표한 준비상황에 따르면, 1일 기준 전 세계 25개국 423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확정부스는 207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8% 가량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스코리아와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엔트브소프트, 엑스엘게임즈 등이 참가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현대중 새 대표에 권오갑 오일뱅크 사장



현대중공업그룹이 15일자로 그룹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에 권오갑(63·사진)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새 대표에는 문종박(57) 현대

오일뱅크 부사장이 내정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장단 인사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현대중공업 기획실을 그룹기획실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오갑 그룹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은 현대중공업 부사장을 거쳐 2010년부터 현대오일뱅크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2013년부터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도 겸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새 대표인 문종박 부사장은 현대중공업 상무를 거쳐 현대오일뱅크 전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양형모 기자



▲ Coleman '파이어 스파이더'

화로대 겸용 다기능 그릴 맛있는 캠핑 필수 아이템

코베아 '3Way 올인원' 3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

현지에서 구입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캠핑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야외에서의 조리 환경이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캠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는 한번 맛보면 헤어 나올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캠핑에서 맛있는 바비큐를 즐기 위해서는 그릴이 필수다. 그릴이란 숯, 가스 등의 연료를 이용해 불을 파운 후 석쇠나 불판에서 식재료를 구울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최근에는 화로대와 그릴을 겸용할 수 있거나, 그릴에 다른 보조장비를 결합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콜맨의 '파이어 스파이더(19만9900원)'는 바비큐는 물론 더치오븐 요리까지 즐길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 화로대 위에 부착된 스테인리스 석쇠를 올려놓으면 바비큐 그릴로 활용할 수 있다. 석쇠를 빼고 화로대 안에 더치오븐을 넣고 가열하면 더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연소 효율이 뛰어난 바디 구조와 함께 열에 손상되지 않는 스포트 코너기술을 탑재한 재판을 부착하여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코베아의 '3Way 올인원 BBQ(20만4000원)'는 전골팬, 바비큐그릴, 야외용 레인지 3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소형 가스레인지 위에 부속품인 팬, 그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 기름구멍이 따로 있어 사용 후 청소하기도 쉽다.

그릴 본체는 물론 숯받이와 석쇠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 아이더의 '멀티 그릴(10만원)'은 본체에 포함된 숯받이와 석쇠로 다양한 캠핑요리를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다리를 끼워 그릴만 따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보관 가방이 있어 수납이 편리하다.

네파의 '차콜 플레이트(23만5000원)'는 바비큐그릴 겸 화로대이다. 경량 제품으로 접어서 보관·휴대가 쉬운 것이 장점이다. 그릴랙이 포함되어 있어 바비큐그릴로 사용 시 그릴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노스페이스 '희망찾기 등반대회' 참가자 모집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28일 서울 도봉산 일원에서 진행될 '제13회 노스페이스 희망찾기 등반대회' 참가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노스페이스가 주최하고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노스페이스 희망찾기 등반대회'는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참가자가 함께 등반하면서 고 박영석 대장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참가 신청은 노스페이스 사회공헌 홈페이지(www.neverstopdreaming.co.kr)나 노스페이스 매장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신청순 최대 1000명이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참가비는 청소년 소외계층등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SKT,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 주관통신사로 활동

SK텔레콤은 '제17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제11회 2014년 천장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주관통신사 및 공식후원사로 활동한다. SK텔레콤과 대회 조직위는 안정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대회를 운영하는 한편 첨단 통신 인프라 시설과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 대회 경기 결과 및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인 관광객, 한 해 500만명 돌파 임박

내달 1~7일 국경절 16만명 방한 예상
500만명 돌파 땀 단일국가 최초 기록
서울 주요관광지 다양한 이벤트 준비

한국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중국인 방한객 '요우커(遊客)'가 10월 중 단일국가로는 처음으로 연간 500만명을 돌파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은 국경절 연휴가 있는 10월 대거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10월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16만여명. 이는 같은 기간 방한하는 외국인 방문객 전체 32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국경절 연휴 방문객 11만8000명과 비교해 35%나 증가한 수치다. 이미 중국인 방문객은 7월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방한 중국인 600만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한 러시가 계속됨에 따라 관광공사도 '집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탬프 투어 이벤트, 쇼핑 프로모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인 개별관광객(FIT)을 겨냥한 '집밥' 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개별관광객이 국경절 기간 중 일반 가정에서 한국의 '집밥'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단순히 미식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참가해 색다른 추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경절 연휴를 포함한 29일부터 10월12일까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과 명동 등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쿠폰 브로슈어를 받아 서울 관광 중 쇼핑·공연·전시·테마파크·교통 등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용 확인 스탬프의 개수에 따라 항공권·화장품 등 푸짐한 경품 응모의 기회도 받게 된다.



5월 노동절 연휴를 즐기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7만명이 방한했던 노동절 연휴에 이어 10월 국경절 연휴에는 16만 명의 요우커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이 밖에 중국 은련(銀聯)카드 및 비싸카드와 공동으로 구매액에 따라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하는 쇼핑 프로모션과 국경절 연휴 기간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대상 환영 행사도 진행한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50세 이상 “은퇴 후 자산 5억~10억원 필요”

KDB대우증권 시니어 노후준비 설문조사
5억~10억원 36%·10억원 이상 25% 응답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금융자산은 얼마나 필요할까. 은퇴 후 적정 금융자산으로 5억~10억원이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발간한 '2014 시니어 노후준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36.3%가 은퇴 이후 필요한 적정 금융자산 규모가 5억~10억

원이라고 답했다. '10억원 이상'은 25.4%, '20억원 이상'은 9.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KDB대우증권 고객 중 잔고 1000만 원 이상의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생활자금으로는 월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9%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200만원(26.9%), 300만~500만원(2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은퇴 이후 월 생활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생활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했다.

그렇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응답자 가운데 25.6%가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으로 저축·투자한다는 응답 비중도 47.9%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월 저축·투자 규모는 정기적일 경우 매월 100만~200만원이 37.9%, 200만~300만원이 21.8%를 차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저축·투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생계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으로는 국민연금(21.0%),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19.2%), 예·적금(16.2%), 보

험(15.2%)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13%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월 가입 규모는 50만원 미만(38.0%)이 가장 많았다.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이나 부업을 하고 있는 응답은 56.6%로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66.4%, 여성은 42.7%로 집계됐다. 수도권(53.3%)보다 지방거주자(59.6%)의 근로 비율이 높았다. 희망 은퇴연령은 70~74세(33.3%), 65~69세(25.5%)로 정년은 70세 전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월급 수준은 100만~200만원(34.5%), 200만~300만원(29.9%) 등이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